

Today's Chart

2022-08-09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류진이 (2122-9210) jinlee@hi-ib.com

위드 코로나, 주요국에서 아직까지 연착륙 중

그림1. 주요국에서 코로나 19 유행과 진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는 연착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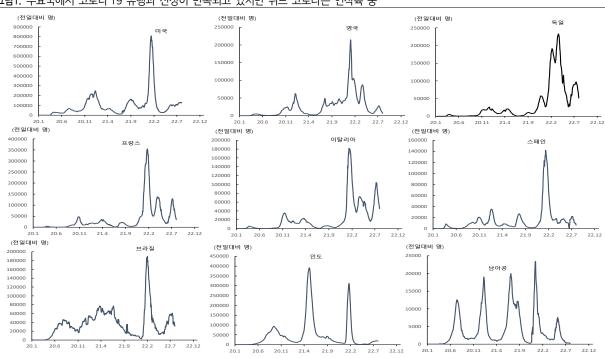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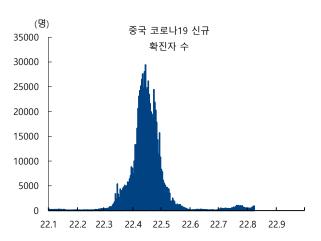


그림2.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유행이 반복중임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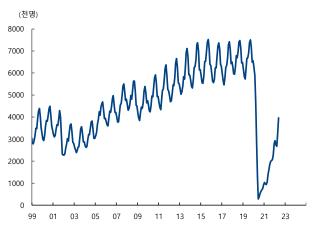
그림3. 뉴욕 연준 공급망 압력지수는 뚜렷한 하락세. 즉 공급망 차질 완화를 시사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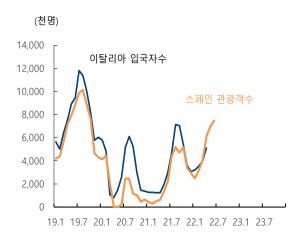


Today's Chart 오늘의 차트

그림4. 미국 방문객 수 추이(22년 4월말 기준)

그림5.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위드 코로나에 힘입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중임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 주요국에서 코로나 19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

주요 선진국 코로나 19, 유행과 진정을 반복 중이지만...

- 주요 선진국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한 이후 코로나 19 는 소규모 유행과 진정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미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 19 추이는 다시 진정국면에 진입 중임
-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재차 확대되는 국면이지만 우려할 수준의 유행 규모는 아님. 다만, 미국의 경우 10월 13일 종료 예정인 코로나 비상사테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일간 기준 10 만명대 수준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음. 연장될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지나 내년 초까지 비상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큼

주요 이머징 국가, 예상외로 코로나 19 유행이 안정 흐름을 유지중

 인도, 브라질 및 남아공 등 주요 이머징 국가의 코로나 19 확산세 역시 예상외로 안정세를 유지중임.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로나 19 확진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 처럼 이머징 국가들의 안정적인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 재유행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는 판단임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은 재유행세가 일부 감지 중

-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세가 유행과 진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통제 영역에 있음. 그러나, 중국의 경우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가 재차 유행할 조짐을 보임.
 8월 8일 기준 중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40명을 기록함. 상하이 봉쇄 당시의 2만건 중후반대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진자 수는 적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지와 달리 제대로 진정되지 못하는 양상임
- 중국내 누적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약 90만명, 즉 인구대비 0.1%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효과를 얻을 수가 미지수임

■ 아직까지 연착륙 중인 위드 코로나는 공급망 차질 완화와 서비스업에 긍정적 기여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정상화되면서 공급망 차질도 완화되는 분위기

- 각종 불확실실성 리스크로 인해 경기사이클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완화되는 분위기임. 대표적으로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뉴욕 공급망 압력지수는 7 월 1.84 로 3 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Today's Chart 오늘의 차트

- 이러한 공급망 차질 완화는 시차를 두고 글로벌 물가압력 둔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관광산업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함

위드 코로나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는 관광업임. 물론 코로나 19 이전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의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경우 올해 6월 관광객수는 코로나 19 이전인 19년 6월 관광객수 대비 84.5% 수준까지 회복했고 22년 4월 기준 미국내 관광객수 역시 19년 4월 대비 약 68%에 이르고 있음. 무엇보다 관광객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은 위드 코로나의 중요한 효과라 할 수 있음
- 유로지역내 주요국 경제에서 서비스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60~7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위드 코로나 연착륙에 따른 관광산업의 회복은 에너지 불안으로 시름하는 유로 경제에 그나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반면 위드 코로나대신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우 빈발하는 봉쇄 조치가 경제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할 공산이 높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 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